

영광군, 전남 인구정책 평가서 '최우수'

전담부서 구축·체계적 인구정책 펼쳐

인구문제 공론화·인식 개선 높이 평가

영광군은 지난 24일 전라남도청에서 진행된 2019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처음 실시한 인구정책 종합평가로써 자체 신규 시책 추진 발굴,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인구정책 전담부서 구축, 순이동 증감을 찾아가는 주 소이전 서비스 및 인구교육 실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영광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영광군은 올해 1월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인구, 청년, 결혼출산, 일자리, 사회경제적 정책을 상호 연계해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인구·청년정책 조례와 인구영향평가 운영 규정 제정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청년정책 정부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총 8건(사업비 40억 6천만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린 점, 또한 인구비전 선포식과 인구 심포지엄 개최, 찾아가는 주 소이전 서비스 및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27개의 기관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전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하고 인식개선에 노력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100억 목표)을 조성하여 청년창업단지 조성, 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영광군민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한 점이 주요했다.

이로써 영광군은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 평가 대상', 일자리창출 평가 '최우수상'에 이어 인구정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까지 인구·출산·일자리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준성 군수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정책 종합평가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문제 극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장기적 정책 시야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여수시, 4년 연속 지속가능 교통도시 선정

여수시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주관 '2019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장 기관표창을 받고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19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시상식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기관을 시상했다.

여수시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수로 구분해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 ▲주차수요관리 ▲교통안전개선 등 12개 항목 31개 지표로 평가했다.

여수시는 공영주차장 7개소



신설, 100원 택시 운영, 해안 자전거도로 21개소 29.6km 개설 등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시내버스 정류소 발열의자?은 실텐트?에어커튼 등 환경개선과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초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시책들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질서 확립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나주시 조정현 주무관 '위대한 한국인 상'

입업발전공로대상

나주시청 산림공원과에 근무하는 조정현 주무관이 서울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입업분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입업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주무관은 시민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나주숲체원 조성 사업을 비롯해 산림보호, 숲 가꾸기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추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21회째 맞이하는 '위대



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회 등이 주관하고 올 한해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한 인물 100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 협력해 너티나무와 빛나무 등 숲 복원과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관리성과 조성도가 우수해 최우수상과 마을지원금 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

화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2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19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다

우수 농업기술센터 평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맞춤형 기술정보 지원 실적 등 총 10가지 지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농촌진흥사업을 평가해 우수 센터를 선정한다.

군은 농업인 맞춤형 기술 현장 교육, 농업기술정보 제공, 농산물 가공 상품화, 재해 대응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에 농업인 전문교육 분야 우수상, 2018년 전라남도 주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매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전남 마을숲 콘테스트 최우수상

담양군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제4회 마을숲 콘테스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용면 두장리 마을숲은 추월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군과 마을

곡성군 필모텔, 자살예방으로 장관상 수상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우수 숙박업소로 선정된 필 모텔을 24

일 방문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부상을 수여했다.

필 모텔은 생명사랑 숙박업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반개탄 등을 이용한 자살 등을 예방하고자 지역 숙박업소 7곳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및 포스터 등을 부착했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